

고3시기 부모의 정서적·물리적 지원이 대학생의 대학전공만족도 및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배희분* · 서주현** · 김효선*** (상명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 KEEP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3학년 시기 부모가 제공한 자녀교육에 대한 정서적·물리적 지원이 1년 후 대학생이 된 자녀의 대학전공만족도와 3년 후 성인으로서 느끼는 자녀의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3시절 부모의 물리적 지원은 1년 후 자녀의 대학전공만족도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못했으나, 부모의 정서적 지원, 즉 자녀에 대한 관심은 대학전공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자녀와 대화시간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고3때 부모의 정서적·물리적 지원이 3년 뒤 성인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 본 결과, 대학전공만족도와 유사하게, 물리적 지원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정서적 지원의 일부 변인은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부모의 정서적 지원 중 자녀에 대한 관심은 3년이 지난 후 성인자녀의 행복감에도 여전히 중요한 긍정적 효과를 유지하고 있었고, 고3때 부모가 가졌던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력도 자녀의 대학시절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대한 실천적 함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부모의 정서적 지원, 물리적 지원, 대학전공만족도, 행복감

I. 서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가지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다. 그러기에 인간의 행복은 오랫동안 수많은 학자들의 관심주제였으며 사실상 인간이 수행하는 모든 학문적 고민과 실제적 적용의 도차지점이 되어왔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 수준에 대한 연구결과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으며,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이러한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OECD 국가 34개국 중 청소년 자살률 1위, 청소년 행

* 주저자. heeboon@smu.ac.kr

** 공동저자. jhsuh@smu.ac.kr

*** 교신저자. hyosunk@smu.ac.kr

복합 34위, 국민행복도 33위, 국민 생활만족도 27위라는 지표가 지난 해 우리나라 국민의 복지수준에 대한 현주소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차세대를 이끌어 가야하는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도 행복을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중간단계인 과도기적 시기를 겪으며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있다. 이들은 성년의 나이를 지나면서 심리적으로 독립하여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데 중고등학교 시기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며, 진학과 진로모색을 위해 갑작스러운 심리적, 환경적 변화를 겪기도 한다. 학업성적, 취업, 결혼, 대인관계 등과 같은 무수히 많은 과업을 완수해야 하고, 이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대학생들의 삶은 행복하기 위해 애쓰면서도 정작 행복감을 느끼기는 어려운 삶이 되어가고 있다.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가 2015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7개국 대학생 1,3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 일본, 인도, 미국, 독일, 브라질 대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대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18점으로 7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또한 대학교육 만족도와 대학서비스 만족도 역시 한국이 최하위였다(<http://20slab.naeilshot.co.kr>). 이러한 수치는 학업적, 직업적 성취만을 강요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이제는 한국의 대학생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심리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우는 것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감이 전반적으로 낮고, 아동기 및 청소년기부터 높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이유 중 하나는 물질 자원보다 인적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적 특성으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고 교육열이 과도하게 높다는 데 있을 것이다. 교육열은 자녀의 학업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기대, 구체적인 지원의 형태로 나타나는 데, 높은 교육열은 자녀의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방면에서 관여하고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과도한 교육열로 인해 자녀의 학업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이종각, 김기수, 2003). 전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한국에서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자녀 수 감소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기대는 물론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지원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제공하는 가시적, 비가시적 제반 여건 및 활동을 뜻하는 것으로, 금전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통칭한다(김현욱, 2012). 금전적 지원 또는 물리적 지원은 자녀의 교육에 경제적, 물질적으로 요구되는 가시적인 측면의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하며, 정서적 지원은 자녀의 심리적 안정성과 학습 의욕을 고취하는 등의 비가시적 측면의 지원을 말한다. 즉, 정서적 지원은 자녀가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분위기 및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이나

부모의 격려와 애정표현 등이 포함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교육열이 높고 초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지원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자녀의 학업에 대한 부모의 지원이라는 변수는 다양한 하위변인들로 구성되며 연구목적에 따라 제각각 조작적으로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부모의 교육적 지원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지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먼저,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대화를 나누거나 학습환경을 조성하며 정보를 동원하는 등의 정서적 지원은 자녀의 대학만족도 및 대학적응 등 자녀의 대학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수란, 이기중, 2015; Keith & Keith, 1993). 이와는 달리, 사교육과 교육적 목적의 주거지 이동 등을 포함하는 물리적 지원은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최운진, 2015; 황성희, 2014)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의 교육적 지원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지원과 물리적 지원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원을 정서적 지원과 물리적 지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정서적 지원은 주로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지지하는 행동으로서 조작적으로 정의되며, 대표적으로 학습환경 조성(이창현, 이은주, 2015; Fan & Chen, 2001), 학업 정보 제공을 위한 행동(임은미, 1998), 자녀와의 대화시간(김경근, 2000) 등이 포함된다. 물리적 지원은 자녀의 학업에 필요한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정의되며, 한국사회에서 학부모 교육지원은 사교육에서 두드러지고(박소진, 박병영, 2003) 이는 공교육에 대한 학업지원을 앞선다는 점이 지적되어온 점(김영천, 송희진, 황인실, 2007)에 비추어 볼 때, 사교육 비용의 지원은 대표적인 물리적 지원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한국사회의 고유한 사교육 문화 현상 중의 하나로 선행연구에서 거론된 교육적 목적의 주거지 이동(김경근, 장희진, 2005; 황성희, 2014) 또한 자녀의 학업 및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지원 행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자녀교육 지원에 관한 논의는 주로 자녀가 나타내는 학업적 성과와의 관련성에 초점을 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곽수란, 2016). 즉 부모가 자녀를 위해 투자한 정서적·물리적 비용에 따른 결과로서 학업성취 향상도를 비롯한 학업관련 변수들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가 주요 관심사였다. 이에 따라 부모의 지원이 자녀의 학업성취(김경근, 2000; 문은식, 김충희, 2003; 변수용, 김경근, 2006), 학습동기(송병국, 박근수, 신성호, 이혜정, 2016; 문은식, 김충희, 2003), 그리고 학업자아개념(김이레, 2003; 김현욱, 2012) 등 학업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이에 반해 부모의 교육적 지원이 학업 영역 외의 심리

적, 사회적 영역 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관심은 다소 미진한 수준이다. 그 중에서도 대학생의 행복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학만족도와 전공만족도는 해당 시점에서의 행복감뿐만 아니라 이후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 때, 직업과 전공의 직무연계성, 직업만족도 등 이후 직업 활동과도 관련이 깊은 요인이다(곽수란, 2016). 따라서 부모의 자녀교육지원이 대학생의 대학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은 졸업 후 직장생활에서의 만족도 및 행복감을 제고할 수 있는 밑그림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부모의 교육적 지원이 최고조에 달하는 고3 시기에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제공한 정서적·물리적 지원의 결과가 과연 자녀의 대학 입학 후 대학전공만족도와 행복감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지나치게 학업적 성취만을 강요하게 되는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삶에 보다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데 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고3시기 부모의 정서적·물리적 지원은 대학생 자녀의 대학전공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고3시기 부모의 정서적·물리적 지원은 대학생 자녀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정서적·물리적 지원과 대학생의 대학전공만족도

한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부모는 다른 요소에 비해 지속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다. Handerson과 Berla(1994)는 66개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성취를 예견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가족이며, 그 중에서도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수입이 아니라 가족이 자녀의 교육에 관여하는 정도임을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특히 부모를 비롯한 가정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문은식, 김충희, 2003; 변수용, 김경근, 2008; 이세용, 1998; 주동범, 1998; 정제영, 정예화, 2015),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 정서적인

지원이 학생의 성취행동을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되고 있다(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이정화, 유경훈, 김은경, 2012).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라 함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제공하는 가시적, 비가시적 제반 여건 및 활동을 뜻하는 것으로, 금전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통칭한다(김현욱, 2012). 금전적 지원 또는 물리적 지원은 자녀의 교육에 경제적, 물질적으로 요구되는 가시적인 측면의 지원을 말하며, 정서적 교육지원은 자녀의 심리적 안정성과 학습 의욕을 고취하는 등의 비가시적 측면의 지원을 말한다. 즉, 정서적 지원은 자녀가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분위기 및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이나 부모의 격려와 애정표현 등이 포함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인 고3 시기의 부모의 정서적·물리적 지원이 대학생의 대학만족도나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드물지만, 이와 유사한 맥락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자녀의 초, 중등학교 학업성취나 대학만족도, 그리고 대학생의 학교적응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은 그동안 상당수 축적되어 왔다(곽수란, 이기중, 2015; 김은주, 2007; Christenson, Rounds, & Gorney, 1992; Epstein, 1991; Keith & Keith, 1993). 부모의 교육적 지원 중에서도 특히 정서적 지원에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해 왔는데 김현욱(2012)은 그 이유에 대해 돈과 시간 등 물리적 차원의 지원은 사회 양극화에 따른 차이, 즉 거주 지역,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물리적인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만큼 비유동적인 반면에 정서적 지원은 부모의 의지와 인식에 따라 얼마든지 가소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정서적 지원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곽수란과 이기중(2015)은 부모가 대학생 자녀에게 주는 도움을 지원과 관여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보았는데, 지원은 자녀가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공하는 도움인 반면, 관여는 그러한 방향과 수행에 대한 지침을 설정하는 것까지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이라 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의 지원은 대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에 직접,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부모의 관여는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부모의 지원과 관여는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그 구분이 모호하다. 스스로의 판단에 한계가 있는 미성년에게 방향을 설정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관여인 동시에 지지가 되기 때문이다(곽수란 외, 2015). 이를 고려할 때, 위의 연구결과는 부모가 도움을 주되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대학생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필요할 때만 돕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자녀가 느끼는 정서적 지원이 중요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은주(2007)의 연구에서는 대학신입생의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율성과 관계성을 모두 유의미하게 높게 지각하며

이는 다시 대학신입생의 학교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함을 밝혔다. 요컨대, 고교 때의 부모지원이 대학생의 대학만족도나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드물지만, 이와 유사한 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대학생 자녀의 대학적응을 돕고 대학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자녀의 학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Natriello & McDill, 1989),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Ho & Willms, 1996; Astone & McLanahan, 1991)는 연구결과도 동시에 보고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말하는 부정적 영향은 부모가 자녀의 숙제를 직접적으로 돕거나 방과 후 활동을 세밀하게 감독하는 것, 빈번한 학교와의 접촉 또는 교사와의 면담, 그리고 높은 빈도의 자녀와의 대화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행하는 교육적 지원이 과잉되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혹은 부모의 만족을 위한 것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지원이 아닌 일종의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기에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부모의 정서적 지원에 대한 자녀의 인식이나 해석,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영신 외(2002)는 부모의 자녀 학업에 대한 통제가 자녀의 성취동기를 높이는 결과는 한국사회의 독특한 현상으로, 부모의 통제가 자녀들에게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서양인의 부모자녀관계와 매우 다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미국 청소년들은 부모의 엄격한 통제를 적대적, 공격적, 비신뢰적이고 거부적인 태도의 표현으로 지각하는 데 반해, 한국 청소년들은 부모의 엄격함을 애정표현으로 지각하고 학업적, 경제적, 사회적 성공을 위해 필요한 자애로운 간섭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전성희, 신미, 유미숙(2011) 역시 한국에서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을 감독하는 행위는 통제라는 개념보다는 안정된 틀 안에서 자율성을 허용하는 개념, 즉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안정된 구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임혜림, 김서현, 정익중(2014)은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은 부모에 대해 친밀과 애정, 권위와 존경을 복합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감독적 부모양육태도의 긍정적 측면이 서구에 비해 더 강조된다고 설명하였다.

부모의 교육적 지원이 지닐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정서적 지원보다는 물리적 지원 영역에서 더 자주 발견된다.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물리적 지원이라고 하면 주로 경제적, 물질적 차원의 지원을 말하며 한국의 교육 현실을 전제로 할 때 사교육에 금전적 비용을 투자하는 행위와 교육을 위해 가족이 거주지를 옮기는 행위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해마다 신학기 직전이 이사철이 되고,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수많은 후보자를 낙마시킨 비리가 다름 아닌 학령기 자

녀의 위장전입이라는 사실은 현대판 ‘맹모삼천지교’에 비유되기도 하는 교육을 위한 이사가 한국사회의 높은 교육열을 보여주는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위한 이사가 과연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의미와 투자대비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경근과 장희진(2005)은 자녀교육을 위해 거주지를 옮긴 경험이 있는 가족들의 특성을 고찰하였는데, 이들 가족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수준이 높았다. 또한 황성희(2014)는 이를 ‘교육유목민 현상’이라고 명명하였다. 교육유목민 현상은 자녀를 명문대학에 진학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 중산층 학부모들이 교육의 핵심 공간을 선택하고 그곳으로의 이동을 실천하는 현상으로, 야간과 주말을 이용하는 ‘통학형 이동’ 형태와 가족 전체 혹은 일부가 이사를 하는 ‘거주지 이주’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고등학교 때 제공된 부모의 물리적 지원이 대학생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광수란(2016)은 고3때의 사교육이 대학전공만족도를 비롯한 대학학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인문계 학생의 경우는 사교육이 대학교 진학 후 학업성적에 오히려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대학생들이 작성한 자서전적 성격의 사교육 경험 보고서를 질적으로 분석한 최윤진(2015)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부모 중심으로 제공된 사교육 경험을 통해 대학생들은 과도한 사교육 의존의 후유증으로 자아정체성의 혼란과 수동적 학습태도에 길들여져 무기력해진 자신을 반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을 선택할 때 자신의 능력이나 소질 또는 흥미를 고려하기보다는 합격 가능한 학과 위주로 진학을 선택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대학전공만족도가 떨어지고 자기 전공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남문희, 이미련, 2014)는 지적과 맞물려 사교육의 폐해가 더욱 가중될 수 있는 위험을 시사한다. 한국교육고용패널을 활용하여 사교육의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한 연구(이재성, 백원영, 안준기, 2016)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의 사교육은 바로 다음 해 대학진학과 같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만 효과가 있었고,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인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밝혔다. 이들은 대학입학이라는 단기 성과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막대한 사교육 투자가 유도되고 사교육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리사회의 우려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또 다른 물리적 지원이라 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한 거주지 이동이 실제로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김경근과 장희진(2005)은 좋은 거주환경은 자녀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거주지 이동이 누구에게나 항상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즉 빈

곤한 가정의 자녀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지역에서 생활할 때 자신이 경쟁에서 도태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적개심이나 좌절감을 느끼기 쉽고 학업성취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거주지를 옮길 때에는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 부담감이 발생하게 되는데 부모의 학력이 높은 경우에는 그 부담감을 상쇄하는 효과가 커서 거주지 이동이 도움이 되지만, 부모의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는 그러한 상쇄효과가 없어서 결국 도움이 안 된다(Lee, Oropesa, & Kanan, 1994)는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2. 부모의 정서적 · 물리적 지원과 대학생의 행복감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 정서적, 물리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자녀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고 때문일 것이다. 선행연구(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12)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정보적, 경제적 지원이 자녀의 생활만족도에 매우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정서적 지원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하정희와 장유진(2011)은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들의 행복감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제라고 하였는데,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가족과 부모가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가 행복감의 핵심적인 기반이 된다고 보았다. 이영민과 임정연(2011)은 고3시절 가정에서 부모가 수험생과 진로에 대해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지가 2년 후 대학생의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지원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송인숙, 홍달아기, 박현선(2013)은 가족건강성이 높은 가족 안에서 생활하는 대학생들의 행복감이 더 높으며 특히 부모와 대학생 자녀가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것과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여 대학생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정서적 노력이 필수 불가결함을 시사하였다.

고등학교 때 제공된 부모의 물리적 지원이 대학생의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부모 중심으로 제공된 사교육 경험을 통해 대학생들은 과도한 사교육 의존의 후유증으로 자아정체성의 혼란과 수동적 학습태도에 길들여진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으며(최운진, 2015), 부모가 자녀에 대해 행하는 교육적 지원이 과잉되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혹은 부모의 만족을 위한 것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지원이 아닌 일종의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기에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EP) 데이터 구축 첫 해인 2004년도에 중학교 3학년이었던 학생들의 4차년도 가구 조사 데이터와 5차년도 및 7차년도 학생패널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4차년도 가구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물리적 지원 정도를 추출하였고, 5차년도 학생조사 데이터를 통해 대학생이 된 후 자녀의 대학전공만족도 점수를 확보하였으며, 7차년도 학생조사 데이터 중에서 행복감 변수를 채택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4차년도는 중학교 3학년 코호트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시점이며, 5차년도는 대학교 입학 시기, 그리고 7차년도는 처음으로 행복감을 단일문항으로 측정한 해에 해당한다. 4차년도의 가구 설문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학생 ID를 기준으로 5차년도와 7차년도의 데이터 중에서 신규로 진입한 패널은 제외하고 대학을 입학하여 2010년도에 대학에 재학하고 있었던 학생 데이터(휴학생 포함)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최종 표본은 1,196명으로 여학생 615명(51.4%), 남학생 581명(48.6%)으로 나타났다. 대학구분에 응답한 대상자들 중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이 65.3% 2년제 대학 학생들이 23%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표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단위: 명)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615	51.4
	여	581	48.6
	계	1,196	100.0
학교유형	2-3년제	259	33.2
	4년제	498	65.8
	계	757	100.0

2. 측정도구

1) 부모의 정서적 지원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총 4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관련 문항을 측정하였다. 첫째, 부모의 학업몰두 환경조성은 자녀가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비학업적 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모의 노력 정도를 의미한다. 둘째, 부모의 자녀교육 정보력은 부모가 자녀의 친구나 친구 부모, 혹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자녀관련 정보 및 교육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를 말한다. 셋째, 자녀에 대한 관심은 부모가 자녀의 성적, 친구, 친구부모, 학교생활, 생활 습관, 개인적 고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자녀와의 대화시간은 하루 평균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각 하위 변인별 문항내용과 척도 점수는 다음과 같다 (<표 2> 참조). Cronbach α 값은 학업몰두 환경조성이 .61, 자녀교육 정보력은 .75, 자녀에 대한 관심은 .82로 나타나 대체로 활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2) 부모의 물리적 지원

부모의 물리적 지원 변수는 자녀교육을 위해 이사한 경험의 유무, 그리고 월평균 사교육비로 구성하였다. 자녀교육을 위해 이사한 경험의 경우 기존 코딩의 값을 예=1, 아니오= 0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월평균 사교육비의 단위는 만원이다 (<표 2> 참조).

3) 대학생 자녀의 대학전공만족도

종속변수인 대학전공만족도는 중학교 3학년 코호트가 대학교 신입생이 되는 5차년도 조사에서 각각 단일문항으로 측정된 대학만족도와 전공만족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표 2> 참조).

4) 대학생 자녀의 행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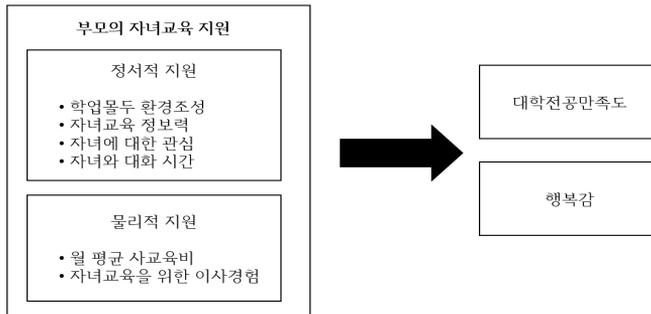
종속변수인 대학생자녀의 행복감은 대학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한 후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기라 할 수 있으며, KEEP 패널데이터에서 처음으로 행복감을 측정한 7차년도의 측정 문항 중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를 1점에서 10점까지 단일문항으로 측정하는 변인을 사용하였다 (<표 2> 참조).

〈표 2〉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변수	내용	척도	비고		
부모의 정서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업물두 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성과와 무관한 독서 통제 공부시간확보 위한 집안일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교육 정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 혹은 자녀 친구 부모들과 교류정도 자녀교육을 위한 인터넷 검색 다른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하는 일에 관한 정보 수집 	1-5점 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에 대한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업 및 성적 친한 친구의 부모 생활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 학교생활 개인적 고민 		4차 가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와 대화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루 평균 자녀와의 대화시간 	5분 미만 = 1 5-30분 미만 = 2 30분-1시간 미만 = 3 1-2시간 미만 = 4 2시간 이상 = 5		
부모의 물리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평균 사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1년간 지출한 사교육비의 월 평균값 	단위: 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위한 이사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의 교육을 위해(좋은 학교나 학군, 대도시) 이사한 경험 	예=1 아니오 =0		
대학전공 만족도	대학만족도+전공만족도/2	1-4점 척도	5차 학생조사		
행복감	행복을 느끼는 정도	1-10점 척도	7차학생조사		

3. 분석모형 및 방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모형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치

연구의 주요 종속변수인 대학생들의 행복감은 평균 10점 만점에 6.72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정서적 지원 중 학업몰두 환경조성(M=2.20)과 자녀교육 정보력(M=2.45)이 평균적으로는 낮게 나타났지만 최소값과 최대값의 격차가 큼을 알 수 있다. 자녀에 대한 관심은 평균 3.31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3학년 자녀와의 평균 대화시간은 평균 5분-30분 미만이 50.4%로 가장 높게 나타나 반 이상의 고3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30분도 안 되는 짧은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표 3〉 부모의 정서적 지원

변수	평균	표준오차	최소값	최대값
학업몰두 환경조성	2.20	.59	1	4.67
자녀교육 정보력	2.45	.75	1	5
자녀에 대한 관심	3.31	.55	1.14	4.86
자녀와의 대화시간	빈도수	%		
① 하루 평균 5분 미만	80	8.9		
② 5분-30분 미만	454	50.4		
③ 30분-1시간 미만	256	28.4		
④ 1시간-2시간 미만	81	9.0		
⑤ 2시간 이상	29	3.2		
계	900	100.0		

다음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물리적 지원 경향을 〈표 4〉를 통해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월평균 사교육비가 최대 650만원에서 최소 0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고3때 교육을 위해 이사를 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응답자의 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4〉 부모의 물리적 지원

변수	평균	표준오차	최소값	최대값	사례수
월 평균 사교육비	39,05	52,65	0	650	1,018
변수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빈도	%	빈도	%	
자녀교육을 위한 이사경험	46	7,5	567	92,5	613(100,0%)

〈표 5〉 변인간의 상관관계

변인	학업몰두 환경조성	자녀교육 정보력	자녀에 대한 관심	대학전공 만족도	행복감
학업몰두 환경조성	1	.45***	.14***	.05*	.09*
자녀교육 정보력		1	.40***	.09*	.12***
자녀에 대한 관심			1	.08**	.11**
대학전공 만족도				1	.14***
행복감					1

* $p < .05$, ** $p < .01$, *** $p < .001$

2. 연구 모형 분석 결과

먼저 고3때 부모의 정서적·물리적 지원이 자녀의 대학신입생 시기 대학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표 6〉 참조). 중다회귀분석 결과, 부모의 물리적 지원은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지만 부모의 정서적 지원 중 일부 변인의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Beta = .21, p < .05$), 대화시간이 적을수록($Beta = -.11, p < .05$) 자녀의 대학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6〉 자녀의 대학전공만족도에 미치는 부모의 정서적·물리적 지원의 영향력

변인	B	SE	β	t	
Constant	2.79	.31	-	8.96***	
부모의 정서적 지원	학업몰두 환경조성	.09	.08	.05	1.13
	자녀교육 정보력	.04	.07	.03	.54
	자녀에 대한 관심	.21	.09	.10	2.19*
	자녀와의 대화 시간	-.11	.05	-.09	-2.21*
부모의 물리적 지원	월 평균 사교육비	.24	.16	.06	1.53
	자녀교육을 위한 이사경험	.00	.00	-.02	-.53

* $p < .05$, ** $p < .01$, *** $p < .001$

$R = .16, R^2 = .03, \Delta R^2 = .02, F(p\text{-value}) = 2.64(.01)$

다음으로 4차년도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정서적·물리적 지원이 7차년도 대학생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표 7>에 나타나 있다. 앞서 대학전공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 분석결과와 거의 유사한 패턴의 결과가 발견되었다. 즉 부모의 물리적 지원은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지만 부모의 정서적 지원 중 일부 변인의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부모의 정서적인 지원 중 고3때 자녀에 대한 관심(Beta=.61, $p < .01$)과 자녀교육 정보력(Beta=.31, $p < .05$)은 3년 후 자녀가 대학생이 된 뒤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고3 때 자녀교육을 위한 이사경험 유무나 월평균 사교육비는 3년 후 자녀의 행복감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부모의 정서적·물리적 지원의 영향력

변인	B	SE	β	t	
Constant	2.72	.88	-	3.07**	
부모의 정서적 지원	학업몰두 환경조성	.04	.15	.01	.25
	자녀교육 정보력	.33	.14	.12	2.34*
	자녀에 대한 관심	.64	.19	.16	3.43**
	자녀와 대화 시간	.04	.10	.02	.39
부모의 물리적 지원	월 평균 사교육비	.61	.33	.08	1.88
	자녀교육을 위한 이사경험	-.00	.00	-.06	-1.40

* $p < .05$, ** $p < .01$, *** $p < .001$

R=.24 R²=.06 ΔR^2 =.05, F(p-value)= 5.76(.00)

V. 결론

본 연구는 KEEP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3학년 시기 부모가 제공한 자녀 교육에 대한 정서적·물리적 지원이 1년 후 대학생이 된 자녀의 대학전공만족도와 3년 후 성인으로서 느끼는 자녀의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정서적 지원으로서 학업몰두 환경조성, 자녀교육 정보력, 자녀와 대화시간, 그리고 학업 및 교우관계, 고민 등 자녀에 대한 관심 정도를 살펴보고, 물리적 지원으로서 부모가 고3때 지불한 월평균 사교육비와 자녀교육을 위한 이사경험 유무를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녀의 대학전공만족도에 미치는 고등학교 시절 부모의 물리적 지원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고3때의 사교육이 대학전공만족도를 비롯한 대학학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연구결과(곽수란, 2016)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결과이다. 반면,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3때 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심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 경우에 자녀의 대학전공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대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에 직접,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곽수란, 이기중, 2015), 그리고 대학신입생의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율성과 관계성을 높게 지각하고 이는 다시 대학신입생의 학교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김은주, 2007)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부모의 정서적 지원 중 자녀와의 대화시간은 부적인 영향력을 보여, 대화시간이 짧을수록 대학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 중 과반수가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5분에서 30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전체 연구 대상의 약 90%가 하루 1시간 이내의 대화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갖는 변별력이 유의하게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학업시간이 길고 경쟁이 치열한 우리나라의 입시전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일분일초가 아까운 고3의 일상 속에서 부모가 자녀를 붙잡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길게 나누는 것은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높은 빈도의 자녀와의 대화가 오히려 자녀의 학업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김경근, 2000)는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며 부모의 지원과 관여를 구분하여 부모가 도움을 주되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필요할 때만 돕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 선행연구(곽수란, 이기중, 2015)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는 고등학생 자녀에게 부모가 지원할 수 있는 정서적 지원은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의 양보다는 자녀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하는 질적인 측면이 더욱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고3때 부모의 정서적·물리적 지원이 3년 뒤 성인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 본 결과, 대학전공만족도와 유사하게, 물리적 지원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정서적 지원의 일부 변인은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부모의 정서적 지원 중 자녀에 대한 관심은 대학전공만족도에서와 마찬가지로 3년이 지난 후 자녀의 행복감에도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고3때 부모가 가졌던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력도 자녀의 대학시절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3때 자녀에 대한 높은 관심과 자녀교육을 위한 높은 정보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부모를 둔 자녀들은 성인이 된 후에 더 행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3 시절 부모의 정보력은 바로 다음 해 자녀의 대학전공만족도와는

무관하였으나 3년 후 자녀의 행복감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설명력을 비교해 볼 때, 똑같은 독립변수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뒤의 대학전공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2%에 불과했으나 3년 뒤 행복감에 대한 설명력은 6%로 시간적 거리와 영향력에 관한 종단법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온 것은 본 연구에서 선택한 독립변수, 즉 부모의 정서적·물리적 지원이 대학전공만족도보다는 행복감을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한 변수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수의 선행연구(권영주, 박영신, 김희철, 2007; 박영신 외, 2012; 하정희, 장유진, 2011)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한편 분석모형의 설명력이 전체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에 대한 응답이 지원을 받는 당사자인 자녀의 지각이 아니라 부모의 지각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직접적인 설명력이 낮아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전공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3 때의 부모와 자녀 간 대화시간의 영향력은 3년 뒤 행복감과 관련하여서는 부적인 영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자녀의 대화시간의 양은 치열한 대학입시의 경쟁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대학전공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3년 후 행복감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부모-자녀간의 대화시간이 장기적 관점에서 자녀의 행복감에는 역기능적 요인이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하건대, 자녀가 후기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로 진입하게 되면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관계가 미치는 영향력은 대학이나 전공을 결정하는 등의 도구적이고 단편적인 측면보다는 삶에 대한 주관적 느낌이나 행복감과 같은 표현적이면서 포괄적인 측면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오랫동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사교육비와 이사 경험 등 물리적 지원은 대학전공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행복감에도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사교육비와 대학전공만족도 및 행복감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사교육비가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선행연구(박도영, 2015), 그리고 고교 때 부모 중심으로 제공된 사교육 경험을 통해 대학생들이 자아정체성의 혼란과 무기력감을 느낀다는 최윤진(2015)의 질적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자녀를 위하는 마음에서 행해지는 부모의 지원이 실제로는 이후 자녀의 행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러한 결과는 부모로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 돕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실증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실효성 있는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학부모의 불안을 이용한 각종 사교육 시장의 유혹과 다른 학부모들이 유행처럼 좇고 있는 교육적 지원 방식을 무턱대고 따르기보다는 자녀에 대한 관심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양질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잘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진정으로 자녀의 삶을 지원하는 부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규모 종단자료를 활용한 연구로서 그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대규모의 종단자료인 만큼 훌륭한 연구자료이지만 한편으로는 종단자료의 특성상 연구과정 중에 대상이 편향될 가능성이 있고, 패널데이터의 변수가 진학 및 직업진로와 관련된 변수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했던 심리 정서적인 변수가 깊이 있게 조사되지 못했던 점 등은 한계로 작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부모의 정서적, 물리적 지원은 지원을 제공하는 부모가 응답한 가구 조사 데이터이고, 종속변수인 대학전공만족도와 행복감은 당사자인 자녀가 응답한 학생 조사 데이터로 응답자가 상이한 점도 추후 연구에서는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몇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높은 교육열이라는 사회 풍조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는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이 대학진학 이후의 자녀의 대학전공만족도와 행복감에 여전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부모들에게 올바른 자녀 지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등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실천현장의 실무자들과 정책입안자들에게 함의를 제공하는 기초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 곽수란(2016). 중등교육기간 사교육이 대학학업과 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9(3), 109-135.
- 곽수란, 이기중(2015). 부모관여와 부모지원이 대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5(2), 1-22.
- 김경근(2000).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아동의 학업성취. 교육사회학연구, 10(1), 21-40.
- 김경근, 장희진(2005). 자녀교육을 위해 거주지 이동을 선택한 가족의 특성. 한국교육학연구, 11(2), 66-87.
- 김영천, 송희진, 황인실(2007). 학원에서 재생산되는 한국 교육의 교육열: 환상과 이해. 한국교육인류학회·안암교육학회 2007 추계학술대회. 교육열 다시보기: 통합적 조망과 비평, 109-135. 서울: 고려대학교 우당교육관.
- 김은주(2007). 부모자녀관계와 자기결정성 요인들이 대학신입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1(3), 539-555.
- 김이레(2003). 사회적 지지와 고등학생의 학업자아개념 및 시험불안과의 관계. 학생생활연구(경희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9, 115-131.
- 김종운, 최미숙(2013).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0(2), 45-69.
- 김현욱(2012). 부모의 정서적 교육지원과 학업자아개념의 자기회귀 교차지연효과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3), 91-112.
- 나유미, 임연진(2003).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리와 청소년의 일탈행동,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4(3), 87-98.
- 남문희, 이미련(2014) 간호대학생의 건강행태,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가주관적 행복지수에 미치는 요인. 디지털융복합연구, 12(10), 363-374.
- 문은식, 김충희(2003). 부모의 학습지원행동과 초·중학생의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2), 271-288.
- 박도영(2005). 학업성취도와 학교만족도에 대한 사교육 및 중·고등학생-부모 관련 변인의 영향력 비교, 교육학연구, 53(4), 57-76.
- 박소진, 박병영(2003). 학벌경쟁 사회의 사교육 소비: 서울 지역 초등학생의 사례. 사회발전연구, 2003, 49-84.
-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과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63-92.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중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37-59.
- 변수용, 김정근(2006). 학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제1회 한국교육중단연구 학술대회 자료집.
- 송병국, 박근수, 신성호, 이해정(2016).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대인관계, 성취압력, 부모지원이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5), 265-287.
- 송인숙, 홍달아기, 박현성(2013).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4), 579-598.
- 이세용(1998). 부모의 교육참여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간의 관계. 한국교육, 25(1), 114-141.
- 이경화, 유경훈, 김은경(2012). 중고등학생 집단에서 부모의 교육적 지원, 자기결정성 동기, 자기조절전략 간의 관계. 교육문제연구, 42, 157-175.
- 이영민, 임정연(2011). 「대학생의 개인특성 및 학교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결정요인 분석」, 『평생교육. HRD연구』, 제7권 제4호, 89~118쪽.1)
- 이재성, 백원영, 안준기(2016). 사교육의 장기효과는 존재하는가?: 한국교육고용패조사를 이용한 분석.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9(3), 57-84.
- 이창현, 이은주(2015). 청소년들의 지각된 부모학업지원 타율적 동기, 자기조절학습전략 간의 중단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9(2), 241-259.
- 임은미(1998). 학업동기 및 부모행동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혜림, 김서현, 정익중(2014).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6(4), 1-27.
- 이종각, 김기수(2003). '교육열' 개념의 비교와 재정의. 교육학연구, 41(3), 191-214.
- 전성희, 신미, 유미숙 (2011). 부모감독, 청소년의 자기결정성 및 행복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4(2), 73-87.
- 정제영, 정예화(2015). 부모의 교육적 관여수준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7), 73-93.
- 주동범(1998). 학생배경과 학업성취: 어머니의 자녀교육에의 관여가 매개하는가?. 교육사회학연구, 8(1), 41-56.
- 최윤진(2015). 대학생들의 입시 사교육경험 의미분석: 사교육 주체, 동기, 관점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5(4), 83-124.
- 하정희, 장유진(2011). 대학생들의 완벽주의 성향과 주관적 행복감 및 사회적 지지 제공의 관계: 사회적 지지수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2), 427-44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복지 수준 비교 연구보고서.

- 황성희(2014). 중소도시 중산층 학부모의 자녀 사교육 지원 문화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4(2), 277-303.
- Astone, N. M., & McLanahan, S. S. (1991). Family structure, parental practices and high school comple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 309-320.
- Christenson, S. L., Rounds, T., & Gorney, D. (1992). Family factors and student achievement: An avenue to increase students' succes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7, 178-206.
- Epstein, J. L. (1991). Effects on student achievement of teachers' practices of parent involvement. *Advanced in reading / language research*, 5, 261-276.
- Handerson, A. T., & Berla, N. (1994). *A new generation of evidence: The family is critical to student achievement*. Columbia, MD: National Committee for Citizens in Education.
- Ho, S. E. & Willms, J. D. (1996).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on eighth-grade achievement. *Sociology of Education*, 69(April), 126-141.
- Keith, T. G., & Keith, P. B.(1993). Does parental involvement affect eighth-grade student achievement? Structural analysis of national data. *School Psychology Review*, 22(3), 474-491.
- Lee, B. A., Oropesa, R. S., & Kanan, J. W. (1994). Neighborhood context and residential mobility. *Demography*, 31(2), 249-270.
- Natriello, G. & McDill, E. L. (1989). Performance standards, student effort on homework, and academic achievement. *Sociology of Education*, 59, 18-31.

Abstract

The Influence of Parents' Affective & Physical Support for their High School Senior Student Child on College-Major Satisfaction, and Happiness

Bae, Heeboon · Suh, Joo Hyun · Kim, Hyosun(Sangmyung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parents' affective & physical support for high school senior students influenced on their child's college-major satisfaction and happiness. The study also used the data of Korean Education Employment Panel(KEEP), and occupi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pursue the research purpose. The results showed that parents' affective support - a concern on their child positively influenced on college-major satisfaction. Conversation time between high school senior student and their parents negatively impact on college-major satisfaction. Parents' physical support did not impact on their child's happiness. However, affective support of parents was very significant to enhance their child's happiness. In particular, their concern on child and information gathering in child's education still kept the significant effect on their child's happiness, even after the 3 years.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provided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future studies.

[Keywords] Parents' affective support, Parents' physical support, College-major satisfaction, College student child's happiness